

민간투자 활성화...노후 주거지·유흥가 상업지구 탈바꿈

'KTX투자선도지구' 지정... 광주송정역 어떻게 바뀌나

광주송정역 일대의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된 것은 '광주·전남의 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과거 송정역 주변의 유흥가와 인근의 낡은 주거지를 상업지구와 융복합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무산된 채 현재 주차타워 건립만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역 등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지역과는 달리 광주송정역에는 주차타워만 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정역 주변 지형이 바뀐다=투자선도 지구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송정역 주변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견제·유용적 완화, 인허가 등 각종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처음 도입됐고 장기적으로 광주송정역 일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규제 완화 광주·전남 관문 획기적 발전 환승센터 건립 재논의 움직임

◇송정역 복합환승 센터는 어떻게? = 2000억원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백지화됐고, 민간사업자와 땅주인인 코레일, 국토부 간 협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진전이 없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주차타워를 짓기로 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공모 제안 요청서 상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종료됐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약서에서도 201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1600억원 등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환승·판매·업무·문화·자전거시설 등으로 구성된 부지면적 1만7000㎡ 연면적 19만324㎡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레일과의 부지 매각 협상과 환승주차장 인대로 협상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신, 코레일이 300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차빌딩과 편의시설 일부가 포함된 연면적 4만3500㎡의 주차타워를 짓고 복합환승센터는 추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1500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송정역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송



추석 직거래 장터 찾은 문대통령 "추석 물가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청와대 연동문에 개설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찾아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요구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복합환승센터가 없는 대도시 역은 역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복합환승센터 대신 주차장만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송정역이 투자선도지구가 된 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 추후 자연스럽게 복합환승센터 건립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남북정상회담 동행"

한병도 정무수석 국회 방문 요청...손학규·김병준은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초청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거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한 수석을 만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 교류협력

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정동영 대표와 이정미 대표도 각각 찾아 남북정상회담 초청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 수석에게 "북쪽 지도자에게 통 크게 핵을 내려놓고 남북평화와 공존시대를 열어가고 하는 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이정미 대표를 만난 한 수석은 예방 후 기자들에게 "초청 의도를 말씀드렸고, 이 대표는 참석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앞서 오전에는 손 대표를 찾아 "제가 이번에는 손 대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 교류협력

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요청에 응한 정치인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동반 방북' 제안을 거절한 보수 야권과 국회의장단을 향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락을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에 금융 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회의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 갈등 점입가경

광주시 "중립 인사 7명만"으로 시민모임 "양쪽 2명씩 참여"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간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 인사 7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광주시와, 시·시민모임 양쪽 대표 2명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민모임의 주장이 상호 양보없이 반복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시에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시민모임 측 거부할 수

도 있어 중재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80여 일간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과 높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 구성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측에서 참여할 경우 일명 진영 논리에 빠져 합리적이며 신속한 논의가 곤란하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모임이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공론화 의지가 없다"며 시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시는 또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건설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저심도 건설

방식에 대해 재정, 안전성, 기술성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는 공론화 논의라는 것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시민사회와 협치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양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이에 대해 "이미 합의된 사항을 뒤엎은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시는 일단 최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12일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달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정부가 다음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회의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을 유치,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

에 금융 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회의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 [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질, 덴마크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사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실 여행자보험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프) & 코코넛 비누 1SET(제공)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페소/1인당) 포함
• 체일(다이빙 무료강습, 라우리부 디스커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란의 십자가, 산베르도요새 또는 마탄당당, 막탄수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합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별 기일(여행일) 1인원, 국내상품 5인원만, 관광진흥법(기일,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의 기일 결제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입금),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박관광, 각종 비자(방콕, 베트남)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